

청소년희망센터 희망소식 2011. vol.3

다문화청소년의 실태 및 개선과제

다문화청소년의 실태 및 개선과제

인 쇄 : 2011년 12월

발 행 : 2011년 12월

발 행 인 : 구 본 용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24) 서울시 중구 신당동 292-61 흥진빌딩

T. (02)2250-3101 / F. (02)2250-3007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생용사촌 인쇄정보(주)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차 례

다문화청소년 실태분석

I. 분석배경	3
II. 다문화청소년의 실태	4
III. 문제점	8
IV. 국내외 관련 법·제도	11
V. 향후 개선과제	16
참고문헌	18

참고자료

1. 심층인터뷰 결과	23
2. 심층인터뷰 보고서	29
3. '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관련 현황	45

다문화청소년 실태분석

I. 분석배경	3
II. 다문화청소년의 실태	4
III. 문제점	8
IV. 국내외 관련 법·제도 실태	11
V. 향후 개선과제	16
참고문헌	18

I

분석배경

◆ 다문화청소년 지원 필요

- 국제결혼이 1990년대부터 증가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증가 예상 가능

※ ‘10년 다문화가족자녀는 총 121,935명이며 6세 이하가 전체자녀의 6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점차 청소년기 자녀비율이 크게 증가할 전망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구분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인원	100	62.1	25.1	7.1	5.6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10

-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언어 사회성 발달, 인지, 정서, 정체성 형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연구 및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미비한 실정

◆ 다문화청소년 기본권 실태점검 필요

-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정체성의 혼란 언어 발달 지연에서 오는 학습부진(조영달, 2006), 주위의 편견으로 인한 사회성 발달(서현·이승은, 2007)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문화가정 자녀 자료 분석 결과 초중·고 다문화가정 재학생의 27%가 학업중단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탈학교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권 보장 점검 필요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9년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2010년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학업중단을	14%		16%		30%		2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 다문화청소년 실태 조사 실시

- 기존 문헌자료 분석을 통한 다문화청소년 실태 분석
- 다문화청소년 관련 전문가 대상 인터뷰 조사 실시

- 기 간 : 2011. 10. 26. ~ 11. 11
- 조사대상 : 총 7명
 -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담당자, 교사, 학부모, 청소년
- 조사내용 : 다문화청소년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실태 등

Ⅱ 다문화청소년의 실태

1. 다문화가정의 교육환경

◆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어려움

-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인 38.4%, 100만원 미만이 21.3%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50만원 미만 94.8%, 50~100만원 미만 90.7%이었으나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약 59%로 가구소득별 어려움을 인지하는 비율에 차이가 나타남
- 주로 어머니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의 풍습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교육(학습지도, 숙제지도 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언어발달 지연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학습부진으로 이어짐

일반 시민들보다 더블로 고생해요. 왜냐하면 언어소통도 힘들고 생활문화에 익숙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자녀들 교육을 하려면 남보다 2배, 3배 더 신경써야 되잖아요. 말 못하는데다가 그런데 다들 상황이 어려우니까 애를 옆에다가 두고도 키울 수가 없어요. 맞벌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제결혼여성-

- 언어·문화 차이, 저소득 등으로 가족 내 통합과 사회적 소외 및 자녀의 언어·학습능력 발달 및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경험(여성가족부, 2011)

원래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혜정(가명)이를 키우니까 문화적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더 갈등이 심해지고 더 힘든거죠.

한국사람들하고 친해지기는 너무 힘들어요. 벌써 몇 마디만 하면 한 단계 낮추어서 사람을 취급 안하니까 그런거는 힘들어요. 후진 나라에서 왔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후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닌데 사람이 꼭 부족한 사람처럼 꼭 2%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상대하니까 주변에 다문화가정끼리 어울려요.

-국제결혼여성-

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 다문화청소년 학교 적응의 어려움

- 학교는 인관관계를 형성해가는 장으로서 교육은 기본적인 소양을 기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역량의 발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중단
 - 교육과학기술부(2010)¹⁾에 따르면 '09년 다문화가정의 취학연령 자녀 42,676명 중 탈학교 자녀가 7,360명(17.2%)에 달하며 특히, 사회진입을 앞둔 고교급 탈학교 자녀수는 약 2천명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 원인

- 한국어 능력의 부족
 - 일상적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언어능력 부족은 학업수행의 문제로 이어지며 학업부진을 야기할 수 있음.

1) 교육과학기술부(2010.10.20) '다문화가족 탈학교자녀를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보도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9)」에서 일반가정의 학생들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어 능력 면에서 일반 가정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일반학생의 초등학교 6학년 언어 검사 결과는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남

○ 학교생활의 어려움

- 전경숙(2008)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인 문제(소외나 놀림, 차별 등) 보다는 학교공부나 숙제 및 준비물 등 개인적이고 실적인 문제를 더 어렵게 느끼고 있음

언어가 안돼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학교 숙제 같은거 그리고 어떤 활동도 잘 제대로 모르고 그런거. -다문화청소년 고희정(가명), 고1-

- '학교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문항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38.5%가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학생은 28.8%로 응답

○ 또래관계의 문제

- 조영달(2006)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경숙(2008)에서는 15.7%가 따돌림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과 따돌림을 경험
- 위와 같은 결과는 일반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비율과 크게 차이는 없으나 일반 학생은 다양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돌림은 정말 말도 못해요. 애들끼리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갖고도 놀리고 엄청나게 울고 들어오고 정말 답답해요. 애니까 가서 싸울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같이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국제결혼여성-

○ 일반청소년들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태도

- '09년 청소년희망재단에서 서울·경기 초, 중등학교 1,725명 대상 설문결과 '다문화가정 자녀와 친구로 지낼 수 있겠는가'란 질문에 '없다(9.3%)', '모르겠다(37.7%)'고 응답
- '의사소통이 어려워(40.4%)', '친구로 지내려면 신경 쓸 일이 많아서(33.5%)', '외모나 피부색이 달라서(24.2%)', '따돌림 당할까봐(16.8%)' 등이 친구로 지낼 수 없는 주요 이유라고 응답

어느 학교는 선생님이 또래를 묶어 준데요. 그런데 언어가 서로 되면 마음이 맞아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언어가 안되는 상황에서 챙겨주려고 하다가 애가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붙여줘도 애는 혼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Y센터 정지영 담당자-

3.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혼란

- 정혜실(2007)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과 면담한 결과,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정체성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함
- 금명자 외(2006) 조사결과 43.5%가 자신을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17.4%는 '외국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가 비아시아인 청소년의 21.4%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계 어머니를 둔 청소년의 60.0%가 자신을 한국인이라 생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의 조사에서는 '나는 외국인이다(43.3%)',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33.3%)'가 높게 나타남

Ⅲ 문 제 점

1. 학교부적응이 다문화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학업중단 충동

- 금명자 외(2006)에서는 28.9%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부가 싫어서’, ‘차별과 불공평 때문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싫어서’, ‘놀림 받기 때문에’ 등이 이유로 나타남
- 전경숙(2008)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남. 학업중단 충동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26.9%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20.2%) 보다 중학생(33.7%)이 높게 나타남
 - 중학생의 경우 공부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큰 이유인 반면 초등학생은 놀림을 받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일반아동에 비해 높은 학업중단을

- 필벽재단(2001) 결과에 의하면 혼혈인 중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인 것으로 나타남(일반인은 1.1% 수준)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아동 2만7,106명 중 4,180명(15.4%)이 정규 교육권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률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총
총인원	22,373명	3,542명	1,191명	2만7,106명
재학수	19,111명	2,970명	845명	2만2,926명
재학률	85.4%	83.9%	70.9%	84.6%

자료 :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실(2010)

◆ 교육 격차와 사회적 지위 격차와의 연결

- 빈곤한 가족은 자녀의 학습도구 구입 및 사교육 등에 투자할 비용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구인회, 2003)
- 학력의 격차는 사회적 지위 격차로 연결되어 새로운 소외계층이 형성 될 수 있음(오성배, 2007)
 - 설동훈 외(2005), 오성배(2005)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가 열악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선입견일 수 있음을 시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별개인 다른 환경적 요인 때문에 교육기회배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저는 저도 많이 배우지 못했고 특히 태어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여기 문화를 모르니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물론 학교에서 설명회 있는데 가서 들어도 못 알아 들어요. 솔직히 몰라요. 대입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너무 막막하고 어느 정도 간단하게 쉽게 알아듣게끔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국제결혼 여성-

2. 또래관계의 부정적 경험이 다문화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정서적·사회적 부적응 문제 야기

- 아동·청소년은 가정·또래·학교 등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적응에 실패할 경우, 우울, 불안, 공격성 등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과 비행, 약물사용 등과 같은 행동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됨
 - 차별 경험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차별이유와 상관없이 우울, 위축 등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하며,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행동적응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김순규, 2011)

- 또래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외로움, 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최석란·김영숙, 2001)

친구 없는 거. 외로워서 맨날 엄마하고 같이 노니까 저도 많이 힘들고 한국애들하고 어울리기 힘들어서..(중략) 중학교 때 다문화가정, 국제결혼가정 캠프 한 번 갔어요. 서로 편하게 잘 놀고 와서 가끔 연락하고 그런데 사방팔방 흩어져 있으니까 만나기 힘들고 같이 놀기도 힘들고요. -다문화청소년 고혜정, 고1-

◆ 차별에 대한 소극적 대처

- 신지혜(2008)에 따르면 차별경험은 일반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모두 큰 영향을 미치나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고 지각하는 것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 자녀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 주장을 잘 표현하지 않으며 또래관계에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애가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현재 자신이 없어지고 말을 안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살살하고 더 과감하게 나서지도 못하고요. -국제결혼 여성-

3. 부정적 경험 다문화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

- Felker(1974) 자아개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총합으로서 실질적인 학습을 통해서 개발되며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함(이순비, 2010, 재인용)
- Roger(1951)에 따르면 자아개념과 자아에 대한 평가는 특히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므로 청소년기에 또래·교사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순비, 2010, 재인용)
- 김용래·김태은(2001)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자아개념은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거나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으로 부정적 자아개념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IV 국내외 관련 법 · 제도

1. 국외 정책 및 현황 분석²⁾

◇ 미국

- 이민자 학생을 위한 공교육에서의 ELS(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국사회 적응을 도움
- 공교육과정에서 반 인종차별교육을 강화하여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
-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헤드스타트(head start)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위해 무료 혹은 저렴한 교육비로 조기유아 교육 제공

◇ 호주

- ‘You+me=Australia’라는 기치 아래 유소년교육부터 인종주의 적 대와 편견을 해소하고 소수문화 공동체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교육 실시
- 학생들의 모국어 유지와 발달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모국어 교육,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편견과 인종차별주의 및 고정관념에 대한 대처전략 개발

◇ 영국

-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인종차별을 제거하고 기회평등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으로 명시

2) 조승호(201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 대학원

- 학교 차원에서 인종간 평등을 위해 학교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
학교정책이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지닌 학생, 직원,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모든 학교정책의 집행과정을 통제하고 학교정책이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 규정
- 이민자가족 및 저소득 가족 교육지원을 위해 '가족문해, 언어·수리력 프로그램(FLLN)'을 통해 교육역량 증진
- FLLN은 부모(또는 양육자)의 문해력, 언어력, 수리력의 향상 지원과 부모의 양육능력 향상 지원, 자녀들의 문해력, 언어력, 수리력을 증진시키고자 함

◆ 독일

- 독일의 다문화교육 방향은 '상호문화교육'으로 토착문화와 주변 문화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됨
 - 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며 다른 인종, 언어, 종교,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한 내용 포함
-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해 교육커리큘럼 및 교사 양성
 - 다문화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교재 개발
 - 이주자를 위한 교사양성 교육 실시 및 특별 학급 설치

◆ 프랑스

- 프랑스의 공교육 제도는 모든 분야에서의 전면적인 평등 강조
 -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프랑스어 교육센터를 세우고 다양한 프랑스어 교육기관들을 집약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
 -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우선교육지대(ZEP) 선정

2. 국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 국내 관련 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11년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 청소년복지지원법

- 다문화청소년의 정의와 범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해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정안 국회 제출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학생멘토링(8,000명) 실시
- 생애주기(신생아, 유아기, 아동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거점학교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 재학학교(초등)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 학습보조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 퇴직교원 등을 방과후 활동 등을 위해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며 학생·학부모 상담을 위해 Wee센터 등과 연계하여 전문 상담 인력, 복지 전문 인력, 통역 인력 등 활용

○ 한국어교재(초급 한국어 교재,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개발) 및 학교 자체 개발 교재(교과학습) 등을 보급·활용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청소년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필요

◆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 국립 교대 및 사범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 사립 교원양성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유도
-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활용
- 학부모 대상 '문해교육 강사요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이 다문화가정 학부모 중도입국 청소년 등에 대한 문해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문화 문해교육 강사요원 연수과정' 개발 추진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활성화
 - 일반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 어울림생활체육 지원 등 확대
 -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교과교육 및 재량특별활동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및 학교·교실의 다문화적 환경 구성 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 및 매체홍보 확대
 - 다양한 매체광고(공중파 TV, 지하철, SNS 등)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확산

<그림1> 다문화가정 청소년 발달단계별 소관부처의 지원정책 흐름

정책 주제	영유아기	아동기(초등)	청소년기(중·고등)
교육 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유치원 우선배치 - 유아교육정보제공 ○ 학부모 집중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학생 맞춤형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멘토링 프로그램 - 다문화교육거점학교지정 - 이중언어교육 - 국제지도자육성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전 예비과정 운영 - 공교육내 특별학급운영 - 공립대안학교 설립지원 (2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대 및 사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 사립교원양성기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유도 ○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 - 이중언어강사 양성 - 다문화 문해교육 강사요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교육기반 및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교육 포털 구축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유아의 언어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지도사 배치 및 방문교육 ('11년 언어지도사 200명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유아의 언어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지도사 배치 -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을 통해 이중언어교육 장려 (94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지원을위한 Rainbow School 운영('11년전국11개소) -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Happy Rainbow 운영('11년 전국 9개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11년 전국 210개소 운영) - 서비스전달체계의 계층화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 구축 ○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의 통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영재교육 : 일반 초등학생 대상의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수업 실시 -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통합지원 프로그램 실시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0~4세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지원 ('11년, 28천명) 		

자료 : '다문화청소년의 실태와 과제 포럼 자료집(2011)

V 향후 개선 과제

◆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 실태조사

- 관련 기관에 따라 파악하고 있는 통계 수치가 서로 달라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우므로 부처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범주의 동일화와 보다 체계적인 현황파악과 조사연구 필요

◆ CYS-Net과의 연계를 통한 다문화청소년 종합지원체계 구축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 및 위기관리를 위해 한국청소년 상담원의 CYS-Net과 연계하여 다문화청소년 종합지원체계 구축

◆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 대상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상담 프로그램 필요

관련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해요. 다문화청소년의 컴퓨터 중독이 심각해요. 부모들은 힘드니까 저녁에 자면 애들이 방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지나 보다 하면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략)애들 한 명 한 명 얘기해보면 안에 화를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풀지 못하잖아요.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Y센터 정지영 담당자-

-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정이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 대상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지원

가족상담이 필요해요. 애만 문제가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굶아있고 부인은 부인대로 굶아있는 거예요. 여자가 말을 못해서 그런게 아니예요. 가족상담,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한글은 아무 때나 가르칠 수 있어요. 문제는 내면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주냐는 거예요. -OO학교 신경철교사-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지원

-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육 및 서비스 지원 필요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복지서비스보다는 교육복지 차원과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진행
 - 유아기에서 아동·청소년기까지 각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정의 애들도 관심 갖고 나라에서 신경을 쓰고 하잖아요. 7,8세가 되면 제한되어 있나봐요. 애도 다문화센터에다 접수를 했는데 내년부터 18세가 되면 그런 지원도 못 받는다고.. 나이제한이 있으니까요. -국제결혼 여성-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

- 일반학생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문화교육 필요
 - 다문화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일반학생들로부터 따돌림 다르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차별임. 따라서 일반학생들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필요
 -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교과과정에 다문화에 대한 내용 포함되어야 함
- 전국민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지속적 홍보 필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분리하려는 교육보다 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다문화청소년을 잘 이해하고 협력, 상생해야 할 사람들이 일반 학생, 학부모, 일반인이기도 한데요. 이들을 위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인식개선 할 수 있는 교육제도도 만들어야겠지요. -◇◇학교 유경희 교사-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2010), 다문화가족 탈학교자녀를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보도자료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
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 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
김순규(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 김승권 외(2010),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래·김태은(2001), 학업/비학업 자아개념, 학교태도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탐색
교육연구논총, 제18집
- 서현·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성상환 외(2010).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송중호(2007). 단일민족환상 깨도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민족연구 30:90-125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과제 진단 포럼
-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0)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 오성배(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no.12
- 왕한석 외(2005), 한국사회와 호칭어, 사회언어학, 13(1)
- 이순비(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조사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 정하성·우룡(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혜실(2009),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여성들의 이야기,
한울아카데미
- 조영달·윤의원·권순희·박상철·박상혁(200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자료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최석란·이영숙(2001), 교사의 단계별 지지에 따른 유아의 만들기 활동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no. 27

한국교육개발원(2009),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탐색 및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참고자료

- | | |
|----------------------|----|
| 1. 심층인터뷰 결과 | 23 |
| 2. 심층인터뷰 보고서 | 29 |
| 3. '10년 다문화가정 학생관련현황 | 45 |

1. 심층인터뷰 결과

I. 응답자 특성

	소 속	이름(가명)	비고
다문화관련 사업담당자	M센터	김재영	팀장
	Y센터	정지영	팀장
	A센터	안인환	담당자
교사	OO학교	신경철	교사
	◇◇학교	유경희	교사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결혼이주민여성	OOO	92년 한국남성과 결혼
	다문화청소년	고혜정	고1, 중도입국청소년

II. 면접조사 결과

1.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 한국어 소통능력 정도

- 다문화청소년 중 중도입국청소년 대부분은 적절한 한국어 습득 기회를 가지지 못해 현지적응이 지체되며 이는 제도교육에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
- 제도교육 편입 전 한국어 및 사회문화에 대한 기초교육이 가능한 예비교육기관이 필요

초기에 소통이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들어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초등연령 이하거나 초등저학년 연령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습득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전혀 못 받기 때문에 당장 한국어를 배울 곳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M센터 김재영 팀장-

- 언어학습 기회가 차단될 경우, 추가적인 학업 기회를 갖기가 힘들며, 이것이 방황으로 이어지기도 함.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단순임시직 노동에 종사하게 됨.

한국어를 조금 배우다가 안 봐요. 그러면 밤에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든지요. 편의점은 찍으면 되잖아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PC방 보조를 한다든지 컴피숍 나르는 거 한다든지 그런거는 말이 필요없잖아요. -OO학교 신경철 교사-

◇ 가정환경 및 개인적 특성

-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의 정체성을 본 심층인터뷰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 맞벌이, 정체성 혼란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가정환경 및 개인적 특성에 불안정한 신분, 학습기회의 차단, 불투명한 진로들이 겹쳐져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일반 시민들보다 더블로 고생해요. 왜냐하면 언어소통도 힘들고 생활문화에 익숙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자녀들 교육을 하려면 남보다 2배, 3배 더 신경써야 되잖아요. 말 못하는데다가 그런데 다들 상황이 어려우니까 애를 옆에다가 두고도 키울 수가 없어요. 맞벌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다 그런 상황이지 않아요.

-국제결혼여성-

-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습득 어려움

맞벌이 부부를 하려다 보니까 친정에 말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오니 언어도 다르고 어려운거예요. 설상가상 엄마도 말을 못하니까... 특히 15살 이상 된 애들은 한국어를 거의 못해요.

-OO학교 신경철 교사-

많이 들어오는 나이가 14살에서 18살. 초등학교 때 들어오면 1년 이내에 한국말을 한국사람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커서 오면 아무래도 노력을 해도 발음이나 이런 데서 완전하게 안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중에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고요.

-Y센터 정지영 팀장-

-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및 심리·정서적 문제

애들 한 명 한 명 얘기해보면 안에 화를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풀지 못하잖아요. 한국말을 모르고 한국에 대한 내용도 몰라서 이러는데 그렇다면 어느 순간 폭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Y센터 정지영 팀장-

우리도 이민을 갔는데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러면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죠. 다행히 한류영향도 있고, 중국보다 삶의 질이나 생활환경이 좋아서 아직까지 아이들한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이 있는데 이걸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처내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

-A센터 안인화 담당자-

◇ 학교 및 사회생활

-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나 문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관련 진술을 살펴보면, 소극성이라는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애가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현재 자신이 없어지고 말을 안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살살하고 더 과감하게 나서지도 못하고요. -국제결혼 여성-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 외국에서 이주한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요. 이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주과정의 스트레스도 있고 청소년기 자체의 스트레스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외부와 소통을 본인이 단절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집에서 안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주 쉽게 중독에 빠져요. 이주하기 전에 가졌던 기대와 이주하고 나서의 상황자체가 너무 다르고 이주하고 나서 초기에 어려웠던 상황을 한국어도 배우고 내가 학교도 들어가면 타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 봐도 경제적 굴레나 이런 거를 타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좌절하고... -M센터 김재영 팀장-

2. 정책적 제안사항

◇ 기관 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과 전환의 시기

- 다문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기관 활동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저학년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 필요

저희가 정체성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국적이 없는 중도입국 청소년 쪽으로 집중적으로 상담이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오는데 저희 활동가들이 초등학생들에게 매달려 있으니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얘기를 한번만 해도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A센터 안인화 담당자-

-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내국인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중앙정부의 지원도 관련 전문가 양성과 전문가 및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컨텐츠 개발 필요

문화 교육 관련 다양한 교사 연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5시간, 30시간, 60시간 등). 교사의 이해를 확장시킬 것인지 또는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지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겠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집합연수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울러 다문화의 다양한 내용을 경험할 수 있는 상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유경희 교사-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 필요

- 심층인터뷰 결과 기관 담당자들은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과의 통합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였음

분리하려는 교육보다 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다문화청소년을 잘 이해하고 협력, 상생해야 할 사람들이 일반 학생, 학부모, 일반인이기도 한데요. 이들을 위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의식개선 할 수 있는 교육제도도 만들어야겠지요. -◇◇학교 유경희 교사-

다문화청소년들 혹은 이주배경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들끼리 학교가 아니면 일반 또래의 한국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학교를 나와 버리면 다 그 나라에서 온 아이들만 계속 만나고 자기네 모국어로 소통을 하고 그러면 한국어를 못 배우거든요. 그리고 한국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M센터 김재영 팀장-

다문화청소년들만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전에 어느 학교에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기숙사식으로 그런 애들 다 모아 났더니 애들이 자기 집단에서 부정적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공교육 틀 안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Y센터 정지영 팀장-

◇ 체계적인 다문화 관련 자료 축적 필요

- 부처별로 통계자료가 달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우며 심층적 사례 분석이나 질적 조사, 또한 다문화관련 기초 통계 DB화 필요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도 약간 심층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 들어 횡단적 조사도 하고 되게 많은데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질적 조사보다는 양적조사보다는 질적 조사가 의미 있을 것 같기는 해요. -M센터 김재영 팀장-

PART 1

PART 2

PART 3

2. 심층인터뷰 보고서



다문화 청소년 권리에 관한 심층인터뷰 보고서



Part A. 조사개요



A1. 조사 목적 및 설계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소년상담원의 내부 포럼에 다문화 청소년실태에 대한 정성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됨.
세부 조사 설계는 아래와 같음.



조사 설계안	
자료수집방법	심층인터뷰 (In-depth Interview)
조사지역	서울 경기 일원
조사대상자	다문화가정 관련 NGO 소속 청소년사업담당자 3명 학교교사(일반학교, 다문화학교 교사 각1명) 2명 다문화 가정 부모 1명 다문화 가정 청소년 1명
표본추출방법	임의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
표본크기	총 7표본
자료수집 기간	2011년 10월 24일 (월) ~ 11월 11일 (금) (주말제외 15일 예정)

A2. 조사 설계

- 다문화 관련 기관의 사업담당자 3명, 교사 2명(일반교 다문화학교 각 1명), 당사자 2명(다문화 가정의 학부모와 자녀 각 1명)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 응답자의 세부 특성은 아래와 같음.

다문화 관련 기관 사업 담당자	1	M센터 김재영 (가명) 팀장
	2	Y센터 정지영 (가명) 팀장
	3	A센터 안인환 (가명) 담당자
교사	4	다문화청소년 학교 교사 겸 이사장 ○○학교 신경철 (가명) 교사
	5	일반 학교 다문화 아동 지도경험 교사 ◇◇학교 유경희 (가명) 교사
	6	다문화가정 학부모(조선족 결혼이주인 여성) 92년 한국남성과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 현재 서울 거주 / 다문화 관련 사회적기업에 근무
당사자	7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청소년) 고혜정 (가명) 학생 (고1)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양육이 어려워 중국 흑룡강성 외갓집에서 성장 / 4년 전 입국

Part B. 주요 조사결과 요약



B1. 연구 대상 - 다문화 청소년의 분류



-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수준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개의 유형으로 분류가능함.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최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문제는 중도입국청소년인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됨.

새터민 청소년

- 북한 출신의 탈북 청소년
-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는 한민족이나 분단 60여년간 형성된 문화적차이로 북한식 언어와 사고방식, 행동양식을 지님
- 그 결과, 학교공부, 교우관계, 직업선택 등 남한사회 적응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경험. 2010년 현재 입국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와 교육을 거친 아동 및 청소년의 1800명 정도이며,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20%를 점하고 있음.

한민족 청소년

- 중국 조선족 청소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고려인 청소년
- 새터민 청소년처럼, 같은 민족이나 구한말 이후 선조들의 이주로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서 출생, 독특한 한민족 문화권에서 생활한 청소년
- 부모의 이주, 취업 등의 이유로 다시 한국에 정착하게 된 사례임.

국제결혼 가정 자녀

- 외국인과 한국인 결혼가정에서 출생한 청소년
- 최근 몇년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음
-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외국인 결혼이주자의 가정, 외국인 노동자의 가정이 양적으로 가장 많음
- 2009년 현재 국제결혼 총 건수는 3600명,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농촌이나 지방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아동기에 있는 경우가 많으나 곧 청소년기에 진입 예정

외국인노동자가족자녀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가정의 자녀들
-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1세와 한국에서 태어난 2세가 있음
- 부모의 한국 내 체류 자격에 따라 그 자녀의 한국 내 권리가 달라짐.

B1. 연구 대상 - 중도입국 청소년

- 중도입국 청소년은 국제결혼(재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이 5~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데려오는 본국 자녀를 의미함. 아울러,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한 이주결혼 여성이 한국에서의 양육이 어려워 모국의 친정에서 일정기간 양육 한 후 한국으로 데려오는 유형, 외국인 노동자가 자녀를 데려오는 유형 등이 있음.

[다문화시대 교육, 갈길이 멀다] 중도입국 자녀

들 일상

서툰 한국어... 학교는 낯설고 어려운 곳

지면보기

정훈 | jw33@kyeongin.com



중요 특징

- 약 2만명 정도로 추정
- 부모와 장기간 떨어져 생활
- 낯선 곳에 대한 문화적 충격경험
- 한국어 구사 못해 한국어를 배우기 전까지 초기 의사소통 및 생활에 애로가 있음.
- 제도권 교육의 사각지대에 위치
- 본국국적이 있음. 방문비자(F2)로 입국.
- 나이가 많을수록, 교급이 높아질수록 탈학교 비율 높음 (교고교생 청소년의 탈학교 비율 30%)
- 94년~ 97년 출생(현 14~18세) 다수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의 60%)

B2.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 - 한국어 소통능력 정도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대부분은, 적절한 한국어 습득 기회를 가지지 못해 현지적응이 지체되며, 이는 제도교육에 성공적으로 편입하기가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제도교육 편입이전 한국어 및 사회 문화에 대한 기초교육이 가능한 예비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 응답자들이 지적하고 있음.

M센터 김재영 팀장

- 중도입국 청소년의 대부분 한국어구사 불가능
- 어렸을 때 들어왔을 경우 습득 기간이나 흡수력이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됨
- 한국에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에 취학, 제도교육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일단 센터에서는 언어학습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언어문제로 인해 한국에서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음.

Y센터 정지영 간사

- 초등학생때 들어오면 1년내내 한국사람처럼 언어 구사 가능하나 커서 들어오면 발음이나 불완전한 부분 있음
- 한국출생 다문화 가정 아동과 엄마 나라 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멘토, 멘티로 묶으면 양자간 언어습득이 훨씬 용이할 것임.

A센터 안인환 사회복지사

- 언어가 안되면 학교에서 받지 않음 → 제도권 교육내에서 포괄하지 못함.
- 경기도교육청에서 외국인시범 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 (안산 관산중학교)
- 조선족 중도입국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 가능한 편
- 중도입국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도래여서 6개월~1년 뒤야 조금씩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
- 나이가 어릴수록 습득속도 빠름

B2.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 - 한국어 소통능력 정도

- 언어학습 기회가 차단될 경우, 추가적인 학습 기회를 갖기가 힘들며, 이것이 방황으로 이어지기도 함.
언어가 안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말이 필요없는 단순임시직 노동에 종사하게됨.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요리사인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학교 신경철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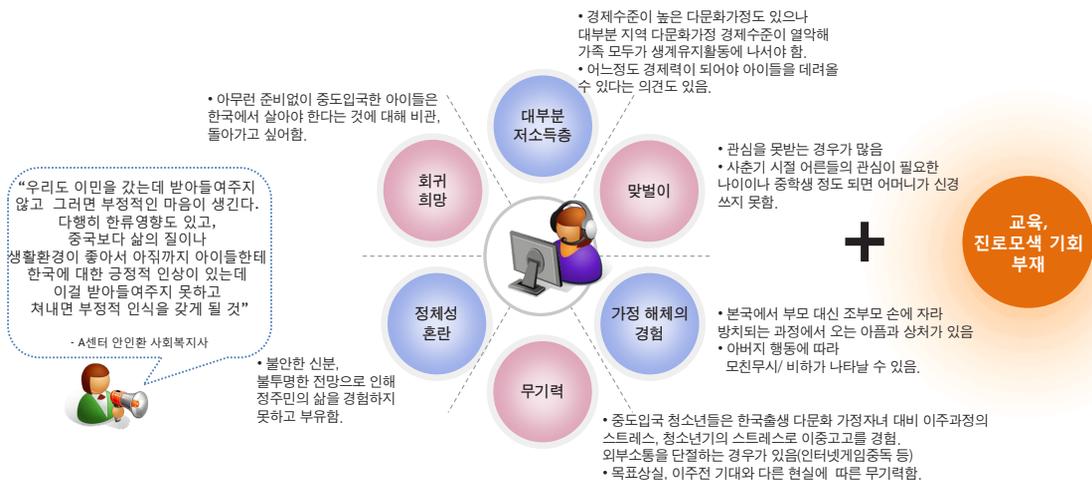
- 주로 중국에서 온 중도입국자가 많은데, 언어소통 능력은 전무함
- 청소년들 나이가 14세-23세 정도로 한국어 학습이 쉽지 않음.
- 맞벌이를 하는 다문화가정 부모는 아이를 엄마나라 처가에 맡기는 경우가 많음.
-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 외에는 말이 필요없는 편의점, PC방 보조 등 굳이 말이 필요없는 저임금아르바이트에 종사

◇◇ 학교 유경희 교사

-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경우 부모 출신국의 모국어로 가정에서 의사소통하므로, 한국어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입학함.
-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움
- 국제결혼가정, 다문화가정의 한국 출생자녀는 일상적인 의사 소통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충적인 지도가 필요함

B2.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 - 가정환경 및 개인적 특성

-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을 아래와 같이 부정적으로 일반화 하기는 어려우나,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 맞벌이, 정체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가정환경 및 개인적 특성에 불안정한 신분, 학습기회의 차단, 불투명한 진로들이 겹쳐져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없게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생후 6개월 7개월 된 애를 (엄마나라에)갔다 왔다가 5살, 6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데리고 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비행기 타고 와서 보니까 할머니 하고 외삼촌이나 할아버지하고 지내다가 한국에 오니까 금방 또 언어도 다르고 그런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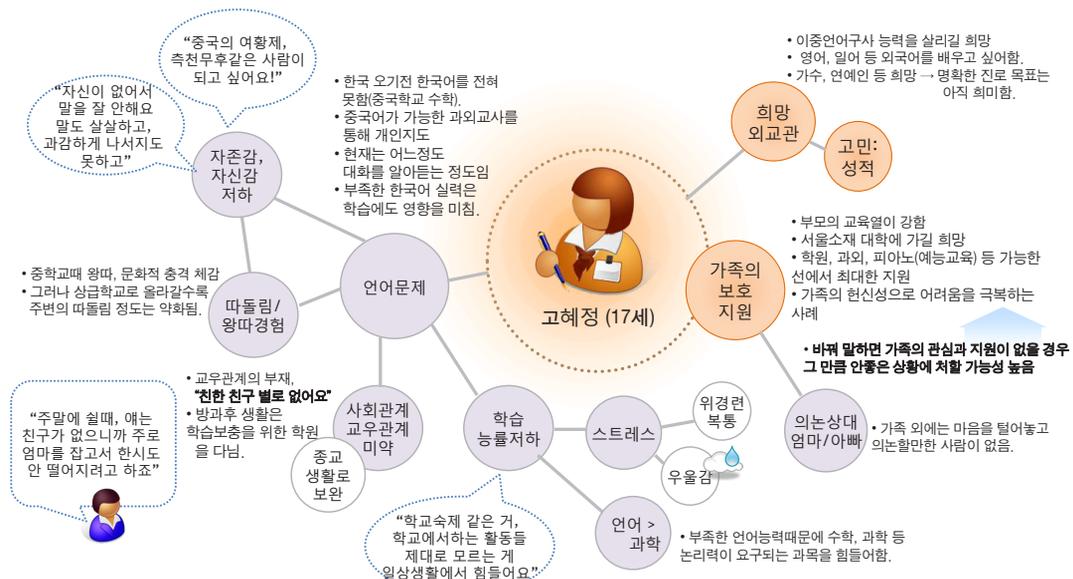
B2.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 - 학교(기관)생활

-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다 다르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임. 그러나 문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관련 진술을 살펴보면, 소극성이라는 측면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음.

	M센터	Y센터	A센터	○○학교	◇◇학교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무기력 • 외부 자극이나 충동에 상당히 민감 •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욕구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고민이 큼 • 주변의 무시에 대한 상처가 큼 • 새벽까지 컴퓨터 중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친구들과의 통합교육진행중이나 쉽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금만 간섭하고 아단칠 경우, 학교에 나오지 않음 • 수업결손이 심각함 • PC방 사용빈도 높음 • 큰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 자신감결핍 • 자기주장을 하지 않아 문제없는 조용한 학생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음.
수업 이해정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분야에 끈기가 없이 이것저것 체험하는 듯 지나가는 경향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개인별로 편차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중도입국학생의 경우 수업이해정도가 낮고 교사와 의사소통 어려움.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친구들과끼리는 잘 지내는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친구들을 전혀 사귀 수 없는 상황임 • 담임선생님과의 관계형성이 아직 어려움(언어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개인별로 편차가 있으나 대부분 간섭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특성에 따라 교우관계 형성정도가 차이 있음.

B2.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 - 혜정(가명) 사례

- 고혜정(17):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어머니가 조선족 결혼이주인 여성으로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때문에 양육을 위해 중국 외할머니에게 맡겨져 중학교 1학년때까지 흑룡강성에서 성장. 한국에 들어온지는 4년 되었음.



B3. 학교 교육 및 지원



- 공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국적별로 달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일부 복지소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접촉한 다문화청소년 대상 비인가 대안학교인 ○○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타 기관 대비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원동원능력에 한계가 있을 경우 종교적 소명의식만으로는 학교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교사	◇◇학교 교사
제공 서비스 /수업 진행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교사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교육 - 영어회화 - 무료식사제공 - 진학희망자 대상 검정고시반 구성, 진학지원 - 수업결손율이 극히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혼 초혼 가정의 자녀의 경우 한국인이므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부여경험을 주는 것이 당연하나, 외국국적의 학생(외국인근로자 자녀, 국제결혼 재혼 가정의 중도입국 학생)은 모국에 대한 사랑과 정체성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교실수업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부모상담 경험 애로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가 모두 근로를 해야 하므로, 접촉 자체가 어려움 •돌봄 수준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혼 초혼가정의 경우, 학교 및 교육청 서비스나 지원 사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출을 꺼리는 태도 있음. - 교사의 판단으로 아동에 대한 보충 학습이 필요하더라도, 부모의 거부로 학생지도에 애로사항 있음. - 반면, 외국인근로자자녀,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학교 또는 교육청 지원에 적극적이거나, 부모와의 상담 역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큼 - 중복 수혜 경험 많음 지원에 의존적이거나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지역사회 자원연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장이 교회목사 •지원 전무함. •지자체의 무관심 호소 •자원봉사자 13인으로 운영 	-

B3. 기관 활동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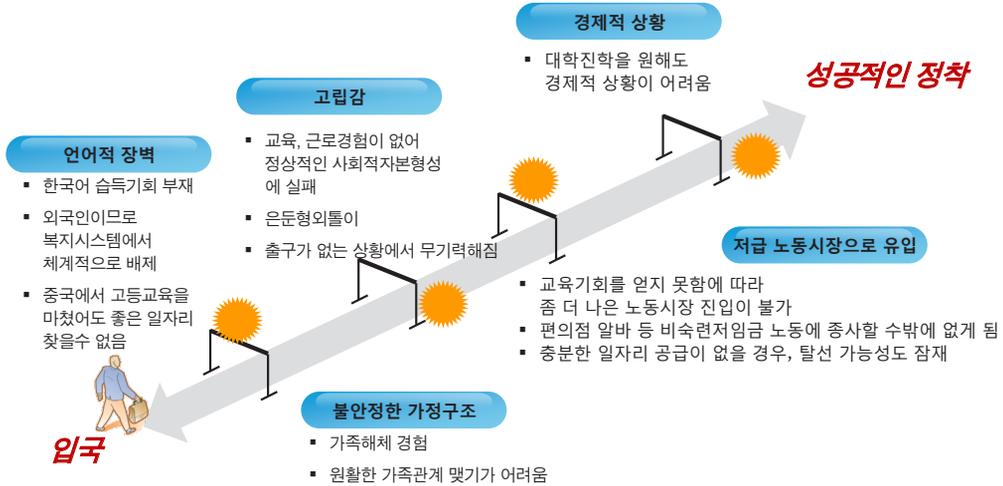


- 마찬가지로 학교를 표방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원기관은 모두 제도권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Y센터는 기존 외국인근로자 지원 활동 과정에서 중도입국 청소년까지 포괄한 경우임. M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원매뉴얼을 만들고 기획하는 역할이며, A센터는 ○○지역 복지관련 NGO의 자원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기관임.

	M센터	Y센터	A센터
주요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지원(한국어 학습) - 공교육 편입을 위한 예비과정으로서의 학력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교육, 학습지도, 학교교육, 문화생활 지도, 의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생과 통합교육 진행 - 문화다양성 교육
지역사회 자원연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지개콜(SK텔레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진로개척사업 - 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된 지원을 받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설치 •의료지도는 한양대 자유의사협회 및 한양대 의대생 중심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OO지역내 다른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과 지원,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이주민센터(공공기관)이 지원 - 그외 OO시, 경기도의회 등에서 예산지원 관련해 관심 표명 - STX의 출자로 다문화도서관인 모두 도서관 건립
주요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부족 •도시와 지역간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지역에서 실행해야 할 기관이나 실무자 부재 •이주민에 대한 이해 및 대응 자체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적으로 인권적 차원에서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외국인, 타지역 거주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성동구나 서울시 예산을 받는 기관이므로 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이 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센터 사업은 사회공동모금회 지원을 받는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를 논의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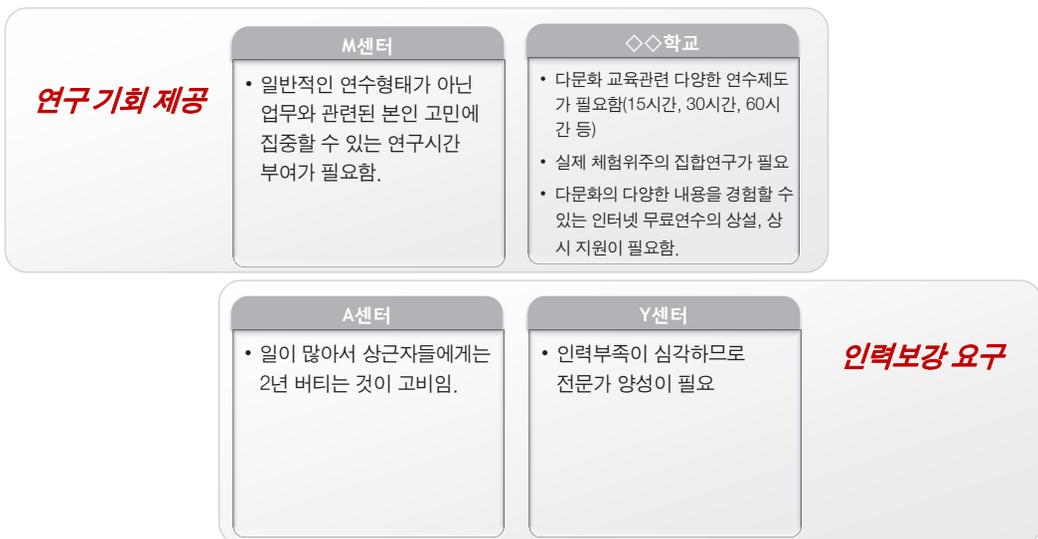
B4.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계획

-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법적지위가 한국인이 아니므로, 진로교육 및 진학을 위한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원래 살던 곳으로의 귀향하거나, 사회적 약자로 바로 진입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청소년기에 이미 '중첩된 벽'에 마주하고 있는 한국임.



B5. 다문화 관련 사업담당자, 교사를 위한 지원요구사항

- 현장 사업담당자, 교사를 대상으로 지원요구사항을 질문한 결과, 교육연구성격이 있는 M센터와 학교에서 일하는 응답자들은 주로 연구, 연수 기회를 주요 지원 요구사항으로 꼽고 있는 반면, 현장 복지기관의 실무자들은 인력충원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관 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과 전환의 시기

문화다양성 및 활동가 지원을 위한 교육, 문화프로그램 필요

- 다문화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기관 활동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저학년 중심의 프로그램을 중도입국이나 중고생 중심으로 상향하여 전환하는 것에 대해 모색을 하고 있었음.
-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학교도 설립되는 과정이어서 이와 관련해 내국인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이 증대함.
-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중앙정부의 지원도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 중등 수준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콘텐츠 개발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저희가 정체성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국적이 없는 중도입국 청소년 쪽으로 집중적으로 상담이나 프로그램들 진행하려고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오는데 저희 활동가들이 초등생들에 매달려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얘기 한번만 해도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안산에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초중고까지 포괄하는 학교가 인가를 받을 예정이라 실무자 소통을 위한 실무자네트워크를 내년 사업으로 잡아놓은 상태예요.

사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권 보장에만 이슈가 맞춰져 있다 현재 약간 선취된 것이 진로교육이고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기능직 교육, 즉, 직업훈련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교육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헤어 디자이너' 가 되고 싶었던 다문화 청소년의 직업 교육 사례

실제로 청소년 나이는 매번 바뀌잖아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고 싶은 게 바뀐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 중에 미용기술을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는 즐기차게 그 꿈을 꺾지는 않아요. 헤어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해서 기본교육 과정을 받았어요. 파마 마는 것도 학원에 가서 배우는 해 주고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헤어샵 체인에 연계를 해 가지고 인턴을 했어요. 그런데 애가 3일만에 그만 뒀어요. 애가 첫날 출근하자마자 손님 머리를 깎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깎는 거 치워야 되고 머리를 감겨야 되고 혼나기도 무지 하게 혼나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의지는 있었고 이 과정이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상적인 과정보다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는 있어요. 하지만 약간 무기력하고 외부 자극이나 충동에 굉장히 연약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청소년기의 고민들이나 풀어야 할 숙제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주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주하면서 겪었던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이러한 과정을 지연을 시켰다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계속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건 아무리 좋은 취업교육이 있어도 아이들이 이를 버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B1.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 - 정책적 제안 사항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유도

통합교육 활성화 및 일반 복지정책으로 다문화청소년 정책 포괄해야

- 기관 활동가들은 다문화청소년과 일반 한국 학생들과의 통합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였으며 향후 이 방향으로 정책이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임.
- 특히 다문화청소년 가정 역시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복지 소외(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받을 건 다 받겠다는 의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함.
- 또한 일반인 저소득층과의 지원에 있어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일반적 복지정책으로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점진적으로 포괄하여 집단내에서의 차등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 애들도 다문화청소년들을 알아야 하고 이 아이들도 한국 애들의 문화를 알아야지 멀리 보면 함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 할 때 일반 아이들도 넣어서 일부러 통합환경을 만들어요.

사회복지 쪽에서 특화된 정책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지요. 그 특화된 정책들이 부메랑으로 돌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게 될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소수집단 정말 저소득계층 어려운 친구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이것을 바꿔야 한다. 일반 복지가 강화된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래야 역차별 논란도 벗어날 수 있구요. 또한 특화 정책은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자명하거든요.

B6. 정책적 제안 사항(사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

VS.

다문화 청소년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최근에 다문화 관련한 안티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이 단체를 만든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지원도 되게 많거든요.

다문화가정의 보육무상지원 이런 거는 한국사람 누가 보더라도 역차별이라고 분개할 소지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원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향후 1, 2년 사이에 국내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크게 일어날 거 같아요.

중도입국 아이들만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전에 어느 학교에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기숙사식으로 그런 애들 다 모아 왔더니 애들이 자기 집단에서 부정적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공교육틀 안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이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요즈음에 애들 한 명 한 명 얘기해 보면 안에 화를 안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안고 있는데 풀지 못하잖아요. 한국말을 모르고 한국에 대한 내용도 몰라서 이러는데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다행인건 아직 아이들이 한류 영향이나 한국 발전상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안아 준다면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B6. 정책적 제안 사항

기관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

안식일, 교육역량강화 기회 부여, 다문화 관련 전문가 자격 부여 등 전문성 강화 방안 요구

- 기관 활동가들은 근무연혁은 아직 짧은 편이며 4-5년차 정도면 상당히 베테랑급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며 연령대는 30대가 많아서 다문화청소년과의 교감은 잘 형성되는 것 같아 보임. 그러나 다문화청소년 업무가 저연령부터 고연령까지 포괄되어야 하고 때론 다문화청소년들의 부모님과도 상담을 해야 하는 등의 업무 범위가 폭넓어 과다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었음.
- 대부분이 민간/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이거나 NGO 단체 소속인데 업무관련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음. **관련한 지원 정책으로 다문화청소년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 개인적인 연구 학습 시간을 보장해주는 방안, 또 다문화청소년 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도/농간) 활동가들 사이의 교류의 장을 만들고 이들을 네트워크 하는 방안이 제안됨.**



일반적인 교육이나 연수의 형태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교수님도 안식년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연구년이나 받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연구년까지는 어려우니까 연구 달 정도가 어떨까 해요.

제가 일하는 곳이 NGO지 사회복지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구나 사회복지 기관은 인력을 로테이션하거나 신입들이 다문화를 맡다 보니까 전문성을 쌓기가 쉽지 않죠. 대개 2년이 고비라고 해요. 이때 떨어져 나가기 쉽죠.

B6. 정책적 제안 사항

보다 체계적인 다문화 관련 자료 축적 필요

통계 DB화, 사례 유형화, 심층적 질적 조사 필요성 대두

- 각 기관들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케이스들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것들이 유형화 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특히 심층적 사례 분석이나 정성적 측면의 조사, 또한 다문화관련 기초 통계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함.

개별적 케이스가 너무 많고 어떻게 유형화를 하기 힘드니까요. 이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매번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 올하는 만들어야지 하는데 그게 사실 이런 데는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사례관리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이 일하는데 그것도 정리하려면 되게 밀리더라고요.

연구가 많이 돼야 되는데 연구도 약간 심층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 들어 횡단적 조사도 하고 되게 많은데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조사보다는 질적 조사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전수 말고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내 왕따'는 실태조사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최근 관련 조사들을 몇 건을 찾아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학교 내 차별당하거나 이런 게 생각보다 비율이 많지 않아요. 전체비율 중에 20%도 채 안 된다고 해요.

B6. 정책적 제안 사항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업 체계 필요

- 다문화청소년들은 주거공간과 학교 활동공간이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 구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다문화청소년 관련 업무가 한 부처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쳐 관여가 이루어지며 법무부, 노동부와는 업무상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철학이나 관심에 따라 다문화가정 지원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협조 등에 있어 차이가 큰 편임. 때문에 향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업무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업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다문화청소년의 거주/활동공간 상이에 따른 지역별 지원체계 특성화 및 지자체 협업모델 필요

제가 일하는 곳은 재개발이 진행되어 이곳에 있던 다문화가족들이 중구, 강북구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다문화청소년 관련 업무 특성상 한번 정이 붙은 기관에 아이들이 계속 다니거든요. 멀리서 오는 친구들은 의정부나 남양주에서도 오는데 저희 기관은 관할 구청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왜 남의 지역의 다문화청소년들까지 지원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B6. 정책적 제안 사항

멘토링을 통한 다문화청소년 자립 시스템 지원

-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고학년이 저학년의 멘토가 되어 자립 자조활동을 돕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연구되고 실행되는 분위기임.
- 특히, 이중언어 학습과 관련하여 나라별로 매칭만 잘 된다면 가능하다는 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음.
- 실제 다문화청소년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으로 진학하는 시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들 중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적극 활용하는 멘토링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그리고 이러한 멘토링 시스템은 내국인과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청소년들간 등으로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함.



예를 들면 '수학여행 가기 싫어' 이래요. '왜 가기 싫어?' 하면 '가면 혼자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선배한테 '너 어땠는지 얘기해줘' 하면 '그냥 가. 가면 친구 한 명 있던 거 세 명 생겨' 좋은 쪽으로 얘기해줘요.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은 한계가 분명 있었어요. 그러면 언니, 오빠들이 새로 들어온 친구나 동생들한테 이걸 이렇게 하고 발음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끌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창피하게 여기기 보다는 남의 일 같지 않게 안아주고 녹여주는 게 있었어요.

B6. 정책적 제안 사항

서울과 지방간 지원체계의 격차 해소책 필요



-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관의 경우, 안산, 서울, 수원, 시흥 등의 수도권에서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내 기관들은 활동도 활발하고 실무자간 소통이나 네트워크도 잘되는 상황임.
- 그러나 다문화청소년 아이들의 분포는 수도권과 지방이 6:4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수도권 외 지역의 활동에 하고 있는 기관 및 기관 활동가들을 위한 인적, 문화적, 정보적 측면의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됨.
-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경우, 근무연수도 수도권 활동가들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가 밀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프로그램 등이 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됨.

구조적으로 볼 때는 예산문제라든지 시설 차이 등에 있어서 서울과 지역의 격차 있거든요. 프로그램수준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수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지역에 못 쓰니까 이것을 마땅히 할 공간과 말아서 할 기관과 실무자가 없기도 하고 여건이 너무 다르니까요.

지방은 1년 버티는 분이 적죠. 초창기에 같이 시작했던 분들 중에 이미 그만 두신 분도 굉장히 많죠. 그분들은 연락도 잘 안 돼요. 초창기에 결혼이주여성 관련하여 일하셨던 분들은 병을 얻어서 그만 두신 경우도 많아요. 활동가들에게 일이 너무 많다 보니 과로하게 되죠.

B6. 정책적 제안 사항

늘어나는 다문화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 필요

투명 예산을 위한 정부의 관리방안 요구

- 최근 들어 다문화청소년 관련 지원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관련 프로그램도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도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활동 및 회계감사들이 보다 더 철저히 이뤄져 예산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리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감사활동이 전문적인 인사들에 의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됨.

다문화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해 사용하는 돈은 쓰여지는 내용을 반드시 주는 데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더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의 흐름이 가지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일회성으로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철저하게 받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3. '10년 다문화가정 학생관련 현황

'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관련 현황

교육과학기술부(2010.5)

①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 현황(유·초·중·고) : 36,396명

◆ 국제결혼가정 자녀 : 34,338명

- 학교급별 비율 : 유 12.5%, 초 68.7%, 중 14.0%, 고 4.7%로 초등 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음
- 지역별 비율 : 경기(21.1%), 서울(12.9%), 전남(9.7%), 경남(7.3%), 충남(6.8%)
- 부모국적별 비율 : 일본(34.0%), 필리핀(17.3%), 중국(16.9%) 등

구분	유	초	중	고	계
2009년	-	20,632	2,987	1,126	24,745
2010년	4,298	23,602	4,814	1,624	34,338

② '09학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률

연도	구분	초	중	고	계
2009학년도	재학생 수(명)	21,466	3,294	1,255	26,015
	학업중단자 수(명)	114	84	25	223*
	학업중단률(%)	0.53	2.5	2.0	0.85

※ 학업중단자 223명 중 189명이 유예·면제 대상

③ 지역별·학교급별 재학 현황

구분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534	3,108	584	196	4,422
부산	248	978	197	70	1,493
대구	131	606	115	30	882
인천	266	1,171	209	82	1,728
광주	79	567	104	34	784
대전	168	409	98	36	711
울산	134	349	62	19	564
경기	541	5,029	1,144	515	7,229
강원	222	1,341	289	77	1,929
충북	227	1,089	241	62	1,619
충남	244	1,565	399	129	2,337
전북	226	1,674	250	75	2,225
전남	421	2,337	449	106	3,313
경북	488	1,475	262	75	2,300
경남	350	1,677	377	103	2,507
제주	19	227	34	15	295
계	4,298	23,602	4,814	1,624	34,338